



25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실종사건을 하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박소정기자

실종사건 경찰 수사·수색 적정성 의문

경찰 “24일 한림서 발견 시신 장미란씨로 최종 확인”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 경찰관 석방 하룻만에 구속
초기 대응·수색 골든타임·범행동기 등 의구심 여전

지난 24일 한림읍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이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37)씨로 확인됐다. 법원의 체포적 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장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은 구속됐다. 또 제주에서 장씨를 포함해 실종 신고된 수명이 잇따라 숨진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초기 대응과 수색 작업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제주경찰청은 전날 합동수색 중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변 야자수능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이날 오전 부검을 실시한 결과, 장씨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에서 법의학관의 치아 감정 결과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지문은 소실된 상태로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발견 당시 장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다만 실종 당시 장씨 인상착의

와 일치하는 의류와 팔찌·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함께 수습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견 당시 발견된 장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초기 대응과 수색 작업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나오고 있다.

시신 발견 장소가 장씨가 장기 투숙했던 숙소와 도보로 약 10분 걸리는 정도로 그리 멀지 않았고 장씨 휴대전화 위치값인 한림항을 관할하는 기지국 반경 안에 있는 곳이었지만 경찰은 장씨를 발견하는데 수개월을 허비했다. 실종자를 찾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더욱이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은 여전히 장씨 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통화를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경장을 상대로 범행동기를 수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씨 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로 전달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 입력됐던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실종 신고된 또 다른 60대 남성 B씨 사건을 장씨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6시 “중죄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A경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한 A경장은 심문이 끝난 후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해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나온 A경장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이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아내 살해 퇴직 경찰 ‘접근금지’ 어기고 범행

지난 23일 자택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홍기로 살해
수차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 범행 후 도주

아내를 살해한 50대 퇴직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서귀포시 남원읍 모처에서 이혼 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 B씨를 홍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1일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다음 날 제주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3일 서귀포시 남원읍 자택에서 B씨를 살해했고, 범행 당일 곧바로 서울로 도주했다.

앞서 A씨의 메모를 확인한 가족은 지난 23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같은 날 A씨가 자주 이용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 지난 24일 아내 B씨가 있는 서귀포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수색하던 서귀포경찰서

관할 파출소 경찰들은 B씨의 주택에 지난 24일 오전 방문했으나, 인기척 등을 발견하지 못해 철수했다. 이후 오후 7시쯤 재방문했고, 유리창 등이 깨져 있는 것을 보고 진입해 숨겨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25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B씨를 상대로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0시쯤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B씨에게 폭언을 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이들을 긴급분리조치했으나, A씨는 오전 7시쯤 B씨를 다시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은 A씨에게

지난해 8월 20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피해자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등을 이용한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를 진행했다. 이 조치는 최대 6개월간 적용된다.

임시 조치 기간이 끝나자 B씨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올해 3월 24일부터 내년 4월까지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해당 조치의 최장기간은 1년 동안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하다.

경찰은 이들을 ‘재발 우려 가정’ 중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으로 분류해 매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했다. 최근 1년간 별다른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접근해 B씨를 살해했다.

이밖에도 A씨는 2023년 6월쯤 경기도 구리시에서 B씨에게 폭언을 해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타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귀포경찰서로 옮긴 뒤 지난해 2월 퇴직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 대기발령

실종사건 허위종결 관련
경찰청 “지휘 책임 물어”

2주간 기강 확립 ‘일반경보’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경찰청이 25일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했다.

경찰청은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 전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제주서부경찰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한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청에는 지난 24일

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일반경보’가 발령됐다. 최근 실종사건 대응 과정에서 허위 보고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 기간에 발생하는 의무 위반과 비위 행위는 엄중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해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맹벌에 도보로 길 건넌

60대 열실신 병원 이송

제주에서 길을 건넌 6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4분쯤 제주시 아라2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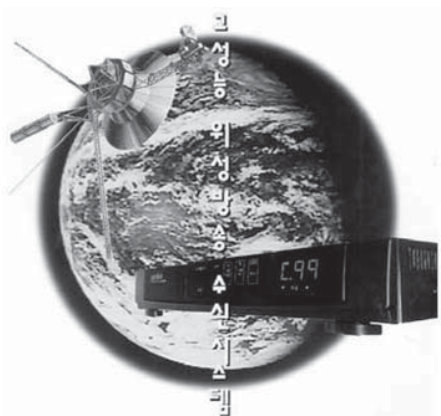
A씨는 당시 도보로 5km가량을 건넌 중 도로에서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119구급대는 A씨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양유리기자

독자 제보 750-223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역 서광로 225 2층
제주서비스터미널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lm Yook
www.samyook.co.kr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

감귤 신제품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